

## 달리고 싶은 아이들의 집



2021년 10월 +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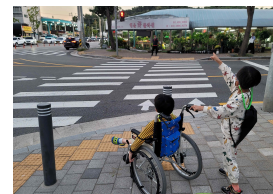
### 미리보기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평평한가. 기울어져 있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발짝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아야 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차이)

### 미리 보기

- 3 여는 글\_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CEO
- 4,5 우리들 이야기\_청소년자원봉사강사단
- 6,7 일터 이야기\_주몽이네 혁신교실
- 8,9 시설 밖에서 본 주몽\_대체인력
- 10,11 책세상\_이야기 모금 원리
- 12,13 복지 엿보기\_장애인이 소수라고?
- 14,15 슬기로운 취미생활\_요리
- 16,17 성명서 함께읽기\_국가보호책임을 강화하라
- 18,23 주몽소식 이모저모
- 24 살림살이\_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 25 좋은이웃, 참 고맙습니다.
- 26 좋은이웃이 되어주세요 (봉사자 모집)
- 27 빨간 우체통\_이○연
- 28 주몽 뒷산 친구들\_딱새

- 기획 : 김하양+서지원+전대진+최태홍
- 편집 : 자원개발부
- 발행일 : 2021. 10. 15(금)
- 발행처 : 주몽재활원 (☎070-8255-0315)



### 표지사진 이야기

9/15(수), 초등학교 두 이용인(형○와 동○)이 재활원밖 가까운 마트로 간식을 사러 나셨습니다. 선생님들을 따라 몇 번 가본 길이지만 돌아서만 가는 시설밖 나들이(!)는 걱정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 달리고 싶은 아이들의 집



2021년 10월 + 가을

### 미리보기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풍경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땅은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평평한가. 기울어져 있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발짝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아야 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차이)

### 미리보기

- 3 여는 글\_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CEO
- 4,5 우리들 이야기\_청소년자원봉사강사단
- 6,7 일터 이야기\_주몽이네 혁신교실
- 8,9 시설 밖에서 본 주몽\_대체인력
- 10,11 책세상\_이야기 모금 원리
- 12,13 복지 엿보기\_장애인이 소수라고?
- 14,15 슬기로운 취미생활\_요리
- 16,17 성명서 함께읽기\_국가보호책임을 강화하라
- 18,23 주몽소식 이모저모
- 24 살림살이\_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 25 좋은이웃, 참 고맙습니다.
- 26 좋은이웃이 되어주세요 (봉사자 모집)
- 27 빨간 우체통\_이○연
- 28 주몽 뒷산 친구들\_딱새

- 기획 : 김하양+서지원+전대진+최태홍
- 편집 : 자원개발부
- 발행일 : 2021. 10. 15(금)
- 발행처 : 주몽재활원 (☎070-8255-0315)



### 표지사진 이야기

9/14(화), 3/4분기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화재대피훈련 후 뒤뜰에서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4회, 안전교육 및 훈련을 계획해 실시합니다.

##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CEO, 리더입니다



주몽재활원장 강향식

우리 재활원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에 맞추어 다섯 명의 인력을 더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교대근무 직원(생활재활교사)들에게도 24시간 근무가 아닌 퇴근이 있는 근무환경으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동안 선생님들의 시간과 사랑, 노력과 열정을 법적 조건 하에서 강요당해 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용인들의 행복이 먼저이기에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 선생님들 보고 사람들은 천사라고 부르네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누려야 합니다. 함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거주 이용인들과 복지현장 종사자들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교감이라는데, 서로 진정성으로 나누고 대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삶의 고객(이용인, 직원, 그 외 함께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통했는지, 그리고 통하고 있는지, 통해야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능력은 클라이언트의 삶과 그 스토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가며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유연함이 확고함을 이기는 세상. 확신과 집념은 잠시 넣어두고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고, 변화를 즐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품지 못하고 옛날 잣대만 들이대면 자꾸 불통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호기심, 존중과 배려로 성공적인 삶의 마케터가 되어 봅시다.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행복입니다. 내 삶의 고객들은 나로 인해 행복한가요? 또,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 자기 삶의 CEO, 리더입니다.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 자체를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봅시다.

## 2021년 '청자강'과 함께하는 놀이시간

서비스지원부 자립지원팀 이은혜

주몽재활원에서 제일 큰 언니오빠들이 참여하는 낮 활동 프로그램 『주몽 징검다리 교실』 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 청소년자원봉사강사단(이하 '청자강')과 함께하는 놀이시간을 소개합니다. 3월부터 매월 2주 화요일(월1회) '청자강' 봉사팀이 우리 주몽재활원에 방문하여 이용인들과 함께 소집단 놀이교실을 운영해 주십니다.

3월 '마음열기'로 컵쌓기, 컵꾸미기 놀이로 서로 인사 나누며 이용인들의 속도(컨디션)에 맞게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참여자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인들의 장애가 심한 만큼 1:1 매칭하여 놀이활동이 시작되어야겠다는 숙제를 안고 헤어졌습니다.

4월 '교통안전교육' 시간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는 주제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놀이형식으로 안전교육하고

5월 '손바닥체조 & 화분심기' 때는 손바닥 박수치기를 통해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육화분심기와 화분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인과 '청자강' 봉사팀이 라포가 형성되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하호호 웃음꽃 가득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6월 '색깔푸드 & 과일꼬지 만들기' 시간에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배우고, 과일꼬지 도시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7월 활동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현재 까지 3월~6월 상반기 4회 활동에 그쳤지만 하루 빨리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3월 첫 모임 후 '청자강'은 이용인들의 장애가 심해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함을 체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도, 활동 인원도 늘려 다양한 놀이활동을 1:1 매칭을 통해 개인의 속도에 맞추어 충분히 즐기고 함께 교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주셨습니다. '청자강'의 배려와 지원으로 이용인들도 빠르게 마음을 열어 활동시간 내내 이용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격려와 지지받는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듯 우리 재활원에서 제일 큰 언니.오빠들도 '청자강' 놀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봉사자(강사)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에 매일 '청자강'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로 서막한 만남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나눔)을 재능기부 해주셔서 2021년 『주몽 징검다리 교실』이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용인들을 대신하여 '청자강' 봉사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회 수고해 주시는 강사님들과 신은진 총무님 감사합니다. 격려차와 주시는 김성업 회장님과 강옥경 부회장님께도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내 삶의 CEO,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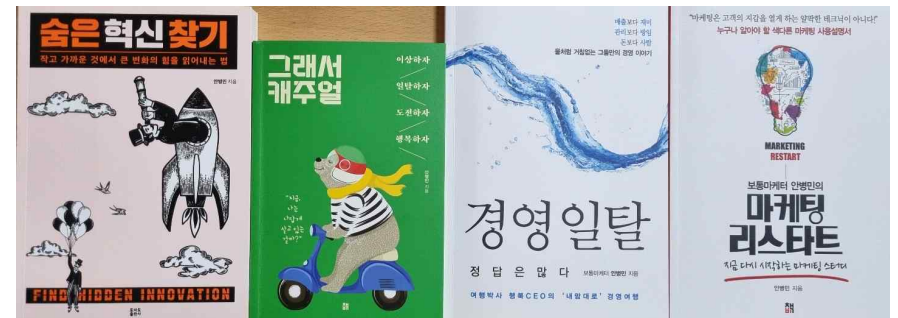
서비스지원부 거주지원팀 천세희

자기주도 학습모임 '주몽이네 혁신교실'에 참여하면서 네 권의 책을 읽고 나누었다. 그 속에서 배운 것은 나를 찾는 방법이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부터 나에게겐 큰 어려움이었다. 말주변이 없어 책을 읽고 내 생각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평소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셨기에 업무를 벗어나 사적인 모임을 통해 거리낌 없이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한 부담이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모여서 업무 외의 사적인 얘기를 나눠 보겠어'라는 마음이 들었고,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말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기에 한 권 두 권 읽어 갈수록 좀 더 나에게 대해 입을 열어 표현할 수 있었다.

함께 읽은 책 『그래서 캐주얼』 내용 중에 '당신은 언제 행복한가요?'라는 질문이 있다. 살아가는데 행복이 필수요소인가?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였다. 책을 읽으며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글귀는 '내 삶의 CEO는 나'라는 것이다. 내가 창조하고 내가 혁신적으로 나의 고객들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가장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긍정이란 생각을 단순하게 전환하는 방법을, 이 큰 두 가지를 나는 이번 모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물이라 생각한다.

물론 좋은 내용, 배워야 할 점,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시작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현재 초짜 CEO인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부분이다.

나의 약점을 마치 강점처럼 내세우고 용기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큰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에 나의 강점은 점차 연기처럼 흩어진 듯 다시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나의 약점은 불에 타고 남은 잿더미처럼 내 앞에 남아있었기에 용기 있는 척 하며 자신을 가꾸기보다 용기를 가지고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별화를,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큰 강점을 내세워 나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다. 고객보다 내가 우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부터 야생마가 되어야 하고 좀 더 내가 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편하지 않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의 이러한 불편함이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기에 CEO로서 내 삶의 고객들에게 잘하기 위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권의 책과 혁신교실은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나 자신에게 던져준 마치 퀴즈문제 같았다. 물론 모든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억하고 남아 있는 한두 가지 단어만 남아 있어도 나에게는 큰 수확물이고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기주도 학습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9월까지 독서모임을 꾸려왔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임윤미, 장현지, 천세희)과 김정해 간호사, 강향식 원장과 허수경 사무국장 이렇게 6명이 월 2회의 정기모임을 가져왔습니다.

\* 『곶대탈출, 주몽이네 혁신교실(독서모임)』 + 지원금 700,000원 (도서구입 등) \*

##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김동희

주몽재활원과 제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1년 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아동들의 미술심리치료를 시작하며 그 연을 맺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재활원에서 만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함께 했던 시간만큼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까지 먹게 되었고, 이는 뒤늦게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활원 선생님들은 장애인은 동정이나 자선, 과잉된 염려나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존엄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걷는 동반자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후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앞서 알려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 12월 숲체험)

봉사활동을 하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신 재활원 조\*\* 대리님이 대체인력 프로그램을 권해주셨고, 잘할 수 있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며 추천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으로 다시 주몽재활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다시 만난 아이들은 먼저 제게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의 안부를 묻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안아주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늘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저에게 편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며 공감해주었고, 우리는 잘 소통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맺게 된 작은 인연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설에 방문했을 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은하게 보았고, 그 내면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그저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원 선생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지금은 제게는 하나 같이 소중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일 뿐입니다. 아이들을 측은하게 여길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지도, 예절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배우고 있으며, 내 아이처럼 혹은 내 아이보다 더 사랑으로 밝게 자라도록 노력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 청결관리도 식단관리도 전문가들을 통해 잘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활원 식단은 영양가도 맛도 아주 훌륭합니다. 대체인력을 통해 다녀본 그 어느 시설보다 맛있는 밥이 제공됩니다. 그런 밥심이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쏟으며 정성으로 24시간 돌보실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입니다. 처음 작은 계기로 맺은 주몽재활원과의 인연은 이렇게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변화는 제 주변으로 다시 번져나갈 것입니다.



김동희님은 2011년부터 우리 주몽재활원과 인연을 맺어 장애아동들의 미술심리치료와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고덕동에 있는 '아름해튼집(구 우성장애인요양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하고 계십니다.

##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모금 원리’ (이원규 지음, 나눔)를 읽고



자원개발부 서지원

얼마 전 가을호(10월) 소식지의 한 꼭지인 『책세상』에 실을 원고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 아닌 강압을 받았다. ‘자원개발부 공부모임 중 읽었던 책 내용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는 원고 청탁이었지만 정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다.

책이라면 삼십 평생 살면서 읽은 책을 손에 꼽을 정도로 책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고, 흔히 말하는 독후감은 초등학교 시절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깎두기 모양의 원고지에 몇 자 적어본 게 전부였다. 그런 내가 주몽재활원 소식지의 한 공간에 채워질 글을 써 내려간다니 부담 아닌 부담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아름다운재단 나눔박스 NO.16 ‘이야기 모금원리’ 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주몽재활원 자원개발부의 부서원으로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로 독서모임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다. (물론 반강제로..)

월 2회의 모임을 갖기로 하고, 모임 전에 정해진 페이지까지 책을 읽은 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임이다. 그 모임의 책 가운데 한권이 나눔박스 ‘이야기 모금 원리’이다. 이 책은 비영리 모금 분야에 20여 년간 몸담은 지은이 이원규 모금 컨설턴트가 그동안의 모금 사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는 책이다.

책에서의 사례는 성공 사례 못지않게 실패한 사례도 다룬다. 필자도 모금실무자로서 성공적인 제안서보다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모금실무자로서 프로포절, 인터넷 모금 등 다양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면 선정 발표날에 해당 홈페이지 창에서 F5(새로고침) 버튼을 수도 없이 누르며 내가 제출한 제안서가 선정되기를 바랐던 적, 또는 인터넷 모금에 내가 작성한 모금함이 등록되고 금액이 저조하여 손톱을 깨물며 초조함을 달래던 그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이 생생하다.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친구에게 인터넷 모금함의 링크 내용을 보내기도 해보지만, 금액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뿐더러 인맥이 짧다는 것만 새삼 느껴진다. 이처럼 모금을 하는 실무자들은 누구나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누가 했던가? 그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글쓰기가 작성한 머리말의 내용을 옮겨 쓴다.

‘모금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며, 모금을 더 잘해 보고 싶다는 단체장이나 실무자를 만나면 이런 성공 사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곤 했다. 다른 단체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일련의 사례는 모금 실무자에게는 물론 단체의 책임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만큼 이야기는 큰 힘이 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의 이야기들을 읽고,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고 또 평가해 보면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필요한 지식과 지혜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이야기 모금 원리’, 성공과 실패 사례로 구성된 책으로 한 장, 한 장 술술 넘어가며 잘 읽히는 책이다. 글쓰기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그중 실패 사례는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마음이 쓰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칭찬은 큰 효과를 가진다. 나도 칭찬에 약하고, 칭찬을 갈망하고, 칭찬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모금실무자는 한 건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한 사례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모금실무자에게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되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오늘도 모금을 위해 도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한걸음 전진하며 내용을 마무리 짓는다.



\* ‘책세상’은 인문, 사회과학 등 도서를 읽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합니다.

## 장애인이 소수라고?

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는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복 받은 삶이었다. 여한이 없었다. 단 하나, 아들 삼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걱정이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가느다란 막대기를 하나씩 주고 부러뜨려보라 했다. 막대기는 힘없이 꺾였다. 이번에는 여러 개를 한데 묶어 주었다. 힘깨나 쓰는 녀석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꺾지 못했다.

대선 시즌이다.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긴다. 한술밥 먹던 이들끼리 체면도 버리고 물어뜯는 꼴이 역겹다. 그래도 고개를 돌릴 수는 없다. 정치만이 사회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까? 헛된 약속이 될망정 공약을 볼 수밖에 없다. 그조차 쉽지 않다. 경제·교육·복지·안보 할 것 없이 옳은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평범한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잘 모르는 문제에 관해 온갖 장광설을 듣다 보면 기가 질린다. 결국 첫인상에 기대어 선택하고 후회한다. 이럴 때는 시금석 전략이 유효하다. 자기가 확실히 아는 분야 한두 가지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장애정책을 본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진일보한 장애정책을 내세운 분들이 있다. 그래도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느리다. 공약을 지킨다 해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구미 각국을 큰 격차로 쫓아가는 수준이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장애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이유다. 비단 나뿐이랴. 며칠 전 자폐의 역사에 대해 온라인 강연을 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다들 답답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 “장애인이 소수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20년 말 기준 263만3000명, 전체 인구의 5.1%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등록기준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 장

애를 갖고 사는 사람은 훨씬 많다. 사실 장애 인구 비율은 포용적인 사회 일수록 높다.

유엔(UN)은 전체 인구의 10%, 북미에서는 14%, 북유럽에서는 20%가 장애인이라고 본다.

### 장애인이 소수라고?



강병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는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복 받은 삶이었다. 여한이 없었다. 단 하나, 아들 삼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걱정이었다.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가느다란 막대기를 하나씩 주고 부러뜨려보라 했다. 막대기는 힘없이 꺾였다. 이번에는 여러개를 한데 묶어 주었다. 힘깨나 쓰는 녀석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꺾지 못했다.

여기에 가족, 친구, 지지 옹호자를 합치면 어떨까? 북미에서는 장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수야!”

한국의 정치 구도에서 인구의 15% 정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판도를 좌우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장애계 내부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고, 우선순위가 각기 다르며, 선호하는 투쟁 방법도 다양하다. 요구 사항도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 있다. 장애인과 가족 스스로 과학적 해법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폐스펙트럼장애’라면 조기진단 체계 구축, 진단 후 교육 프로그램 확립, 생애주기에 걸맞은 정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껏 확보한 경제적 지원조차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 쿠폰 몇 장 받아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사이버 프로그램을 전전하다 보면 아까운 시간을 다 흘려가고, 돈은 돈대로 깨지지 않던가. 의사나 정치인들이 어렵히 알아서 하겠느냐고? 천만의 말씀! 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는 일은 쉽고도 어렵다. 하지만 세상 어떤 일이 그렇지 않으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손을 잡는 것, 어깨를 견고 서로의 곁에 서는 것,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힘을 깨닫는 것. 장애인들이 손에 손을 잡으면 벽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뜨릴 수 있다. 장애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보니 보수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불교니 기독교니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약자 편에 서세요.”

※ 2021. 9. 7(화)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를 옮겨왔습니다.

## 따라하고 싶은 요리를 보면 바로 마트로 갑니다

서비스지원부 최태홍

... 깔끔하게 다듬은 스페어립(돼지갈비 원육)을 트레이에 놓고, 꿀이나 머스타드로 마사지를 한다. 시즈닝(소금, 후추, 로즈마리 등등)을 하고, 진공 포장비닐에 넣어 공기를 완전히 빼준다. 수조에 물을 채우고 원육을 편안히 눕힌 후에 수비드 기기를 75도로 세팅한다. 12시간의 사우나가 끝나면 물기를 꼼꼼히 닦은 후에 바비큐 소스에 스리라차 소스를 섞어서 발라준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10분 구워주고, 소스를 한 번 더 바른 후 200도에 10분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환상적인 스페어립 바비큐가 완성된다.





요즘 한창 빠져 있는 ‘수비드(sous vide)’를 이용한 조리법을 간략하게 적어봤다. 수비드는 프랑스로 음식물을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가열하여 조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즐겨 보는 유튜브에서 발견한 수비드 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오~ 이거다’를 외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구를 했다.

수비드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집에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재료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테이크를 팬에 조리하면 대부분 오버cook(over cook)이 되고, 사방이 기름으로 도배가 되었다. 수비드는 고기 전체를 고루 익혀 주었고, 주방을 깔끔하게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이제는 토마호크, 양갈비, 티본스테이크 등 육류 뿐 아니라 해산물도 수비드를 하게 되면서 재료를 다루는 자신감과 요리에 대한 즐거움을 배가 시켜 주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공유 할 수 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 편할 수 있겠지만 함께 만들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눈다면 대화가 풍성해 지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된다. 초등학교 인 딸은 아빠랑 피자, 샌드위치 만들었을 때가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요리도 추억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주몽 이용인들과 2년 동안 ‘맛콧죽톡’(맛있게 쿡쿡! 즐겁게 톡톡!)이라는 요리 활동을 진행했다. 장보기, 요리하기 등 각자 역할을 정해서 과정에 참여 하도록 했고, 완성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용인들도 만족했지만 가장 즐거웠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나 싶다.

언제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네가 살아갈 시대에는 남자도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 짓기와 설거지를 가르치셨다. 방학이면 친구들과 종일 지냈는데, 라면을 끓이더라도 온갖 재료를 조합하여 먹었던 기억이 있다. 가정환경과 다양한 경험이 오늘의 취미생활로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늘도 유튜브를 보다가 따라하고 싶은 요리가 나오면 바로 마트로 간다. 재료를 다듬고, 만들고, 함께 먹고,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이 즐겁다. 내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위해 즐거운 취미생활을 이어 가겠다.



###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을 강화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향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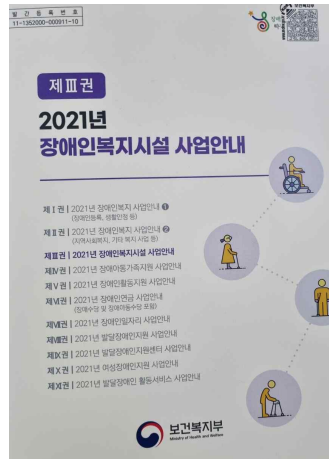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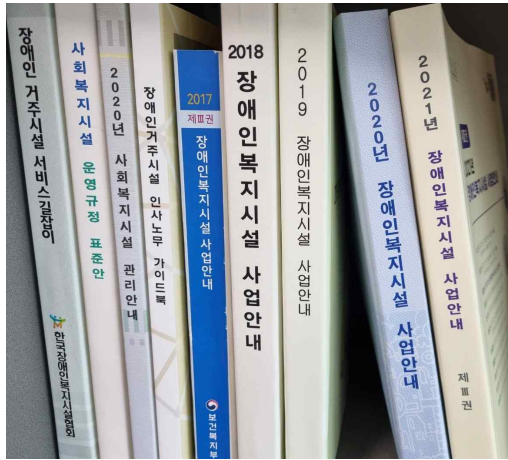
그러나 상기 로드맵을 보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 시설장 및 직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곳으로 거주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기준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 거주시설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즉 대규모시설이 양성된 것도, 시설운영방식이 설정된 것도, 입소절차를 정해놓은 것도, 지역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도록 운영되는 것도 모두 정부의 통제적 방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원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거주시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거주시설의 획일적 서비스와 단절 문제, 인권침해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게 뒤집어씌우며 그동안 60년 넘게 민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펼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규거주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 강화,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 우선, One Strike-out제와 같은 정책은 지역사회인프라 및 대체 서비스 등 사전준비가 매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당사자와 시설거주희망자가 90%가 넘음에도 시설을 전환시키고 연간 740여명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거결정권 보장이 아닌 강제적 조치일 것이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장애인은 평균연령이 40세이고, 수급권자 비율이 83%, 중증장애인은 98%, 일상생활동작의 모든 항목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73%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고스란히 그 가족이 떠안아야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함께 마련되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주거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8. 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일동

※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주몽 거주 이용인들과 종사자들이 함께 내일을 설계하고 한걸음씩 실천해 갑니다.



주몽소식 이모저모



주몽소식 이모저모!

2021 장근석 생일기념 나눔 사진전

기부금 10,000,000 원

“주몽 재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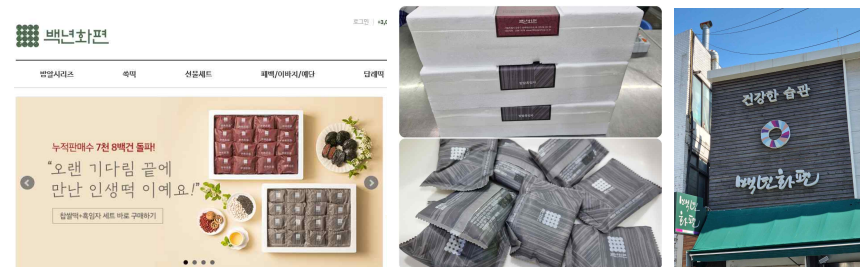
장근석 공식팬클럽 크리제이 Cri J

배우 장근석 + 팬클럽 크리제이 Cri J (나눔 사진전 기부, 고맙습니다~) 9/17(금) 오후,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장근석 배우 팬클럽 크리제이 Cri J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장근석 배우의 생일을 기념해 해마다 열고 있는 2021년 ‘나눔 사진전’을 통해 모인 수익금 일부를 우리 재활원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팬클럽 크리제이 Cri J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주몽 41명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나눔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팬클럽 크리제이 Cri J 회원님들과 장근석 배우님, 참 고맙습니다.

백년화편 - 밥알찹쌀떡! (드셔 보셨어요?)

잇을 만 하면 연락주시는 곳, ‘백년화편’이 재활원 가까이 있습니다. ‘자연과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는 옛 방식으로 매일 만드는 건강한 떡’이라는 홍보문구처럼 건강을 담은 떡을 우리 재활원 장애아동·청소년들과 나누고 있는 떡집입니다. 꽤 유명(!)한 곳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백년화편 밥알찹쌀떡은 절구치는 옛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덕분에 찹쌀떡, 우리 아이들이 자주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너리’ 블로거 김은영 님과 ‘정직한 파파’**

7/30(금), ‘엘리너리’ 블로거 김은영 님과 ‘정직한 파파’ 김원석 대표님께서 음료와 빵을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나눔을 하겠습니다’라는 따뜻한 말씀도 함께! 보내주신 음료와 빵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KDB산업은행 - 우산 + 아이스클렌(냉스카프), 송편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관심과 사랑에 감. 사. 합. 니. 다 !**

**다양한 먹을거리를 보내주신 팬더TV**

9/28, 팬더TV 백대종 BI님이 따스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재활원에 다양한 먹을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간식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팬더TV 백대종 BI님과 시청자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세븐일레븐 강동지사, 사랑의 물품 후원**

7/21, 거주 이용인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를 푸짐하게 보내주신 ‘세븐일레븐 강동지사’, 지난 어린이날에도 물품후원을 한가득~ 해 주시며 주몽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 삼성전자가족봉사단 : 명절 때마다 식료품 세트들...**



**9/15(수), 잊지 않고 찾아주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큰 힘이 됩니다.**



9/9(목),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정훈 강동구청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명절지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뒤편 캠핑 + 물놀이 등 ...**

맛있는 음식(보쌈 등)을 먹는 것을 시작으로 텐트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시원한 풀장에서 물놀이도 하며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더위 속에 불어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 \* \* \* 사진으로 돌아보는... 여름방학 + 추석명절 연휴 \* \* \* \* \*



『추석 맛이 한마당』, 모두가 어울려 즐거운 명절연휴를~  
'맛있는 추석'을 위해 차돌박이 떡볶이와 전을 부쳐 먹었고,  
'신나게 뛰놀자'를 위해서는 투호놀이, LED쥐불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가위(추석), 명절연휴도 즐겁게 지냈습니다.**

주몽소식 이모저모

먹는 즐거움을 무엇에 비할까요? “먹을거리 후원, 고맙습니다”



7/11, 선경유치원 성현정 원장, 천도복숭아와 수박  
8/09, 이진숙 전 주몽재활원장, 직접 기른 찹옥수수



7/05, 김문희 후원자님, 살구  
7/27, 서순덕 후원자님, 파리고추  
9/10, 한국장애인환경실천협회, 떡(절편)



이동식 이불빨래방(2차)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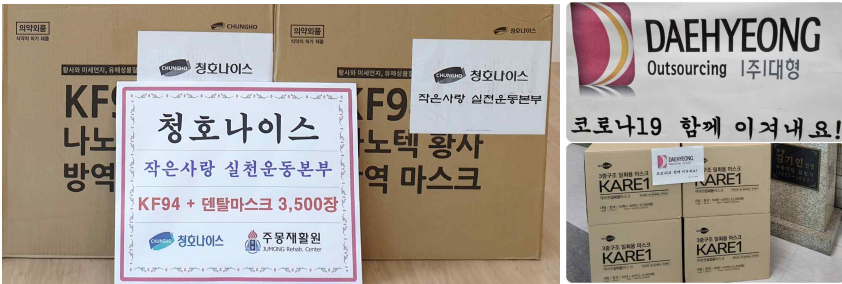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주시는 서울시 이동식 이불빨래방!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움으로 이불빨래를 했습니다.  
9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여름이불을 정리하고, 가을·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후원, 고맙습니다”

(사)국제소토퍼미스트 한국협회에서 마스크 10,000장을 보내주셨습니다.(7/16)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한국협회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7/26, 청호나이스 작은사랑실천운동본부 7/21, (주)대형(이콥엔젤스 이양로 님)



8/09,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9/09, 어떠카지TV 정라희 대표(여성용품)



이별과 만남이 이어지고 있어요!  
**행.복.합.시.다!**

- 07/01(목), 생활재활교사 장미애 입사
- 07/31(토), 생활재활교사 정길중 퇴사
- 08/01(일), 생활재활교사 정도희, 권가원 입사
- 08/04(수), 생활재활교사 박병준 입사
- 08/10(화), 생활재활교사 남병진 입사
- 09/01(수), 생활재활교사 한의경 입사
- 09/30(목), 생활재활교사 장미애, 한의경 퇴사



나누는 기쁨, 주몽재활원 장애아동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2021년 3/4분기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기간: 2021년 7/1 ~ 9/30		(단위: 원)	
수입		지출	
기부금종류	금액	지출항목	금액
지정후원금	15,032,200	지정후원사업비	14,204,600
비지정후원금	12,677,800	인건비	9,027,700
-	-	여비	6,000
-	-	차량비	50,000
합계	27,710,000	합계	23,288,300



날개를 달아주세요~

주몽재활원은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41명이 살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휴지, 기저귀 등 생활용품부터 TV 등 생활가전까지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 거주하는 장애아동들이 사용할 컴퓨터(노트북), TV, 냉장고, 세탁기
- 세제(락스, 트리오 등), 샴푸, 린스, ...



“후원” 문의 및 안내

주몽재활원 정기(일시)&결연&물품후원 ☎070-8255-0315

주몽재단 정기후원 ☎070-8255-0302 (법인사무국)

■ 좋은이웃, 참 고맙습니다!

**물품으로 도움주셨습니다.** (2021년 7월~9월)



강동구청 강철수 강향식  
 고덕시립양로원 국제소토티미스트(신사클럽 이호정) 권태훈 김순기 김연우  
 Dell Technologies Korea 디딤자리 몽벨 분당스퀘어점 박대중(팬더TV)  
 박미연 박상진(김문희) 박정자 백년화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가족봉사단 서순덕 서울특별시(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세븐일레븐 강동지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심선희 안미령 어쩌카지TV 정라희 어린이재단 엘리너리(정직한파파)  
 이진숙 임일택 장대봉 장선옥 장순심 전재석 조스미 조현승  
 (주)대형(이콥엔젤스 이양로) 주성용 진선미 청호나이스  
 한국산업은행 한국장애인환경실천협회  
 해프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수경

**성금(기부금)으로 도움주셨습니다.** (2021년 7월~9월)



고원우 고주연 곽익연(이선호) 곽정욱(이경숙) 권태훈 김기희 김동환  
 김동희 김만겸 김만수 김민 김승래 김시환 김은국 김은미 김종운  
 김학모 김현숙 김혜정 남현숙1 동성화인텍 뜻모아 박밀 박에스터  
 박영진 박옥주 박일 박정란(김대연) 박효정 백현희 KDB산업은행  
 성기창(성연제) 성원엽 성현정 수협중앙회 신예지 심선희 심해운  
 아이들과미래 여혜자(걸스카우트) 오원호 오재봉 오정택 오충열 오현미  
 우혜정 위성환 유승형(문미아) 윤덕배 윤영식 이막래 이상미 이세정  
 이수자 이신행 이윤진 이은주 이정희 이콥엔젤스 임경숙 임예지 임윤미  
 장아름 장혜경 장근석(팬클럽 크리제이) 전대진 전미숙 전의진 정규형  
 정상준 정원정 정재연 조스미 채희정 최미라 최순애 최우인  
 하순옥(한신종) 한경옥 한기철 해피빈 허수경 허철안 홍성렬 홍영경  
 \*김덕민 김도희 김미향 김반석 김희순 류정수 오세민  
 이계성 이명철 이승원 이용정 최성혁 황인숙\*

**자원봉사활동으로 도움주셨습니다.** (2021년 7월~9월)

뜻모아 (남진숙 윤향순 이은희 정말엽 정숙지 정시화)  
 못난이 사춘기 (김상임 윤정순 최순영)  
 틈새봉사단 (서순덕) 개인 (전세진)



■ 좋은이웃이 되어 주세요!

**주몽재활원과 함께할 좋은이웃!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비고
성인	급식실	식당(급식실) 지원 (식재료 다듬기, 설거지, 청소)	월요일 ~ 금요일 (10:00~14:00) *활동시간 및 요일 협의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나눠 주실  
 지역주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일동 새 아파트 입주민 환영합니다!  
 명일동과 고덕동, 길동,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그리고 하남에 사시는  
**우리 마을 자원봉사자님들을 자주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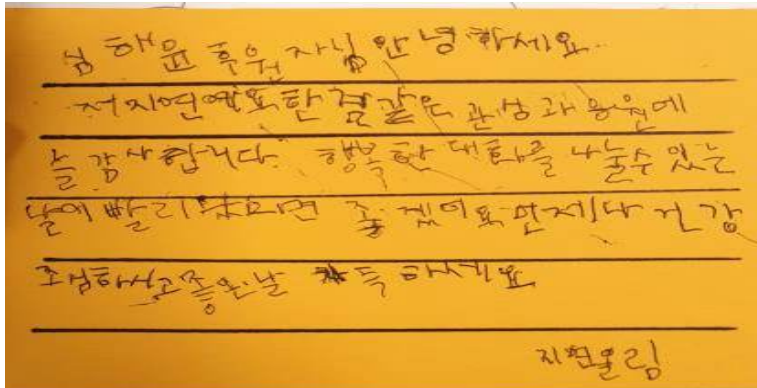
□ ■ 문의(☎) 070-8255-0315 사회복지사 서지원 ■ □

1:1 결연후원, 고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첫 만남을 가진 이0연 거주인과 심해운 자원봉사자,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이어나가 2020년 7월부터 결연후원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부터 후원활동까지 참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0연 님이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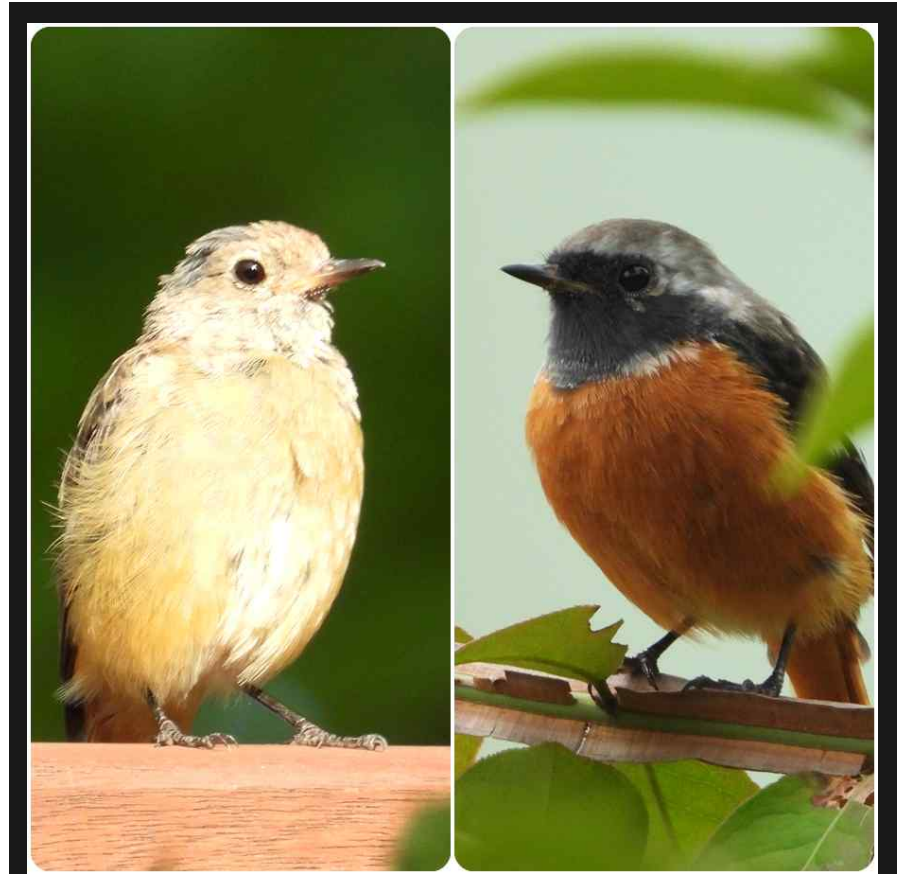
심해운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 0연이에요.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에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건강조심하시고 좋은날 가득하세요. 0연 올림



거주 장애아동·청소년과 1:1 결연후원을 해 주세요!

- ① 결연후원 계좌로 다달이 정기후원금을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701-608853 예금주 주몽재활원)
- ② 후원자명과 주민번호, 주소 알려주십시오. ☎070-8255-0315
- ③ 아동이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 관계(인연)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몽 뒷산에 사는 '딱새'입니다. '딱딱' 소리를 낸다고 딱새예요. 콩지를 아래위로 까딱이며 '딱딱' 소리를 냅니다. 크기는 참새만 하고, 수컷은 가슴이 붉고 멧과 날개깃이 까맣습니다. 암컷은 온몸이 연한 갈색입니다. (9/3, 9/8 촬영)

■ 자원봉사활동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 월 1회~4회 정기활동
- ⇨ 급식실 조리지원, 외출 지원, 말벗, 시설환경미화 등

■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 정기후원, 장애아동 1:1 결연후원, 물품 후원

■ 자원봉사 + 후원 안내 (상단) ■

☎ 자원개발부 070-8255-0315 (0314)